

이야기 2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주제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10]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받을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신의 돈을 모두 챙겨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그는 사치와 비싼 음식,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에 돈을 쓰며 살아갔어요. 생각 없이 돈과 물건을 나누어 주다가 결국 어느 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돈도, 음식도, 집도 없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지자 일을 찾아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돼지를 돌보는 일뿐이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 돼지들이 먹는 음식까지 먹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는 외롭고 슬프고 가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충분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어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쁨에 가득 차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꼭 안고 사랑으로 입을 맞추었어요. 이어서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우리가 큰 잔치를 열 것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들은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암송해 보세요. (누가복음 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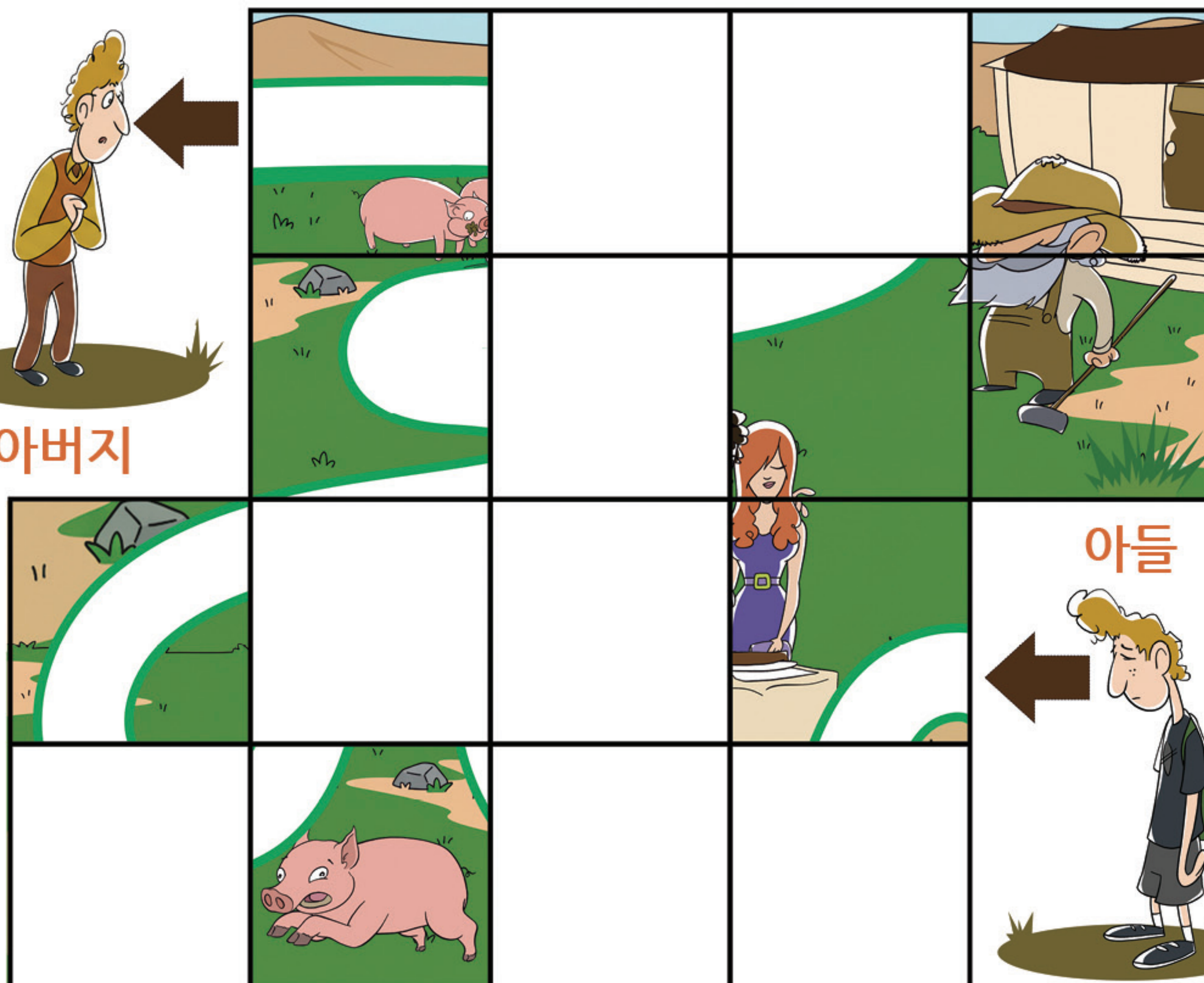
아래의 길 조각을 오려 붙여서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물: 가위, 풀.



아버지



아들

